

석사학위논문

# 제주 검시의 현황과 문제점



제주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치형

2003년 12월

# 제주 검시의 현황과 문제점

지도교수 강 현 옥

김 치 형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김치형의 의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위 원 \_\_\_\_\_ (印)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3년 12월

The Recent Status and The Point at  
Issue of Postmortem Investigation  
in Jeju

Chi-Hy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Hyun-Wook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DEPARTMENT OF MEDICIN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2003.12

## ABSTRACT

To know recent status and the point at issue of postmortem investigation in Jeju, the southernmost island in Korea has short history of forensic practice, we analyzed unnatural deaths investigated in Jeju during the five years of 1988 through 2002 inclusively. Of the total number of unnatural deaths(1,118), 349 of the deceased(31.2%) were studied by autopsy in this period. Advisably, the annual autopsy rate was increased gradually with an increase of unnatural deaths. Drowning occupied large proportion(25.6%) of unnatural deaths. A sudden increase of thermal injury and intoxication in 2002 has attracted attention. Postmortem investigation conducted by prosecutor without participation of expert witness involves a lot of risk and that is one of the current nationwide issue as well as in Jeju. In conclusion, the role of forensic specialist in scene investigation and necessity of administrative support for improvement of medicolegal investigation system in Jeju is emphasized.

Key Words : postmortem investigation, unnatural death, autopsy, forensic

## 목 차

ABSTRACT	i
목 차	ii
LIST OF TABLES	iii
서 론	1
재료 및 방법	3
결 과	4
고 찰	10
결 론	14
참 고 문 헌	15



## LIST OF TABLES

Table 1. Number of Deaths and Unnatural Deaths in Jeju . . . . .	6
Table 2. Number of Autopsy and Unnatural Deaths . . . . .	7
Table 3. Year Distribution of Autopsy According to Cause of Death . . . . .	8
Table 4. Comparison Table with Data of NISI . . . . .	9



## 서 론

검시는 국민의 죽음을 감시하는 사법제도의 하나로써 사망자 개인에 있어서는 억울한 죽음을 밝힘으로써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검시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을 우선으로 하며, 그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검시의 숭고한 목적과 당위성으로 볼 때,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국가라면 당연히 국가차원에서의 일률적인 체계가 서 있어야 할 것이며, 목적하는 바가 같다는 전제하에 지속적인 개선 과정을 거친 검시체계도 이제 즈음은 국가간에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바람직한 검시체계의 모델이 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의 검시 체계는 국가간에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개선,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검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있다고 판단된다. 검시는 한 사회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상태에서 발전, 개발될 수밖에 없다. 주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범죄의 양상, 지역사회의 장례문화 등은 검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사회적인 요소이다.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 전문인력의 확보율, 지원분야의 과학기술 발전도 등도 제도의 정비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요소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검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정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반면, 사건해결과 관련된 검시 실무에 있어서는 신속성 또한 주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정확과 신속은 서로 상충되는 요소이지만, 검시의 특수성상 반드시 상호보완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검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난제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간 혹은 지역간의 검시체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지속적인 수정작업과 보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 지역사회의 검시현황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요소이고, 그 사회의 성숙도를 가

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적인 모델만을 주장하는 것은 자칫 바람직한 검시제도의 개선 방향과 노력에 역행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최근 5년간 제주의 검시현황을 분석하였다.





## 재료 및 방법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내에서 발생 보고된 변사체에 대하여 제주도내 3개 경찰서의 변사체 발생보고자료, 검안 및 부검기록 등을 수집하여, 연도별, 월별 변사체 발생 양상과 함께 부검 시행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부검이 시행된 330예의 경우, 연도별 사인별 비교를 통해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류된 자료를 타기관의 검시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제주의 검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검시 실무를 통해 나타난 체계상의 문제와 연관지어 해석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제주지역 검시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 결 과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제주도내의 사망건수는 총 14,454건으로 연간 3000건 내외이다. 2000년 이후 수치상으로 약간 줄어든 정도이나 연도별 큰 차이는 없는 상태이다. 반면, 변사체 발생 건수 의 경우 첫 두 해에는 160여건에 이르던 것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간 25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Table 1).

부검 시행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1998년도 부검 건수와 비교할 때 2002년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다. 제주도내에서 발생한 변사체의 부검은 대부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2001년 5월에서 8월까지 시행된 부검례 중 19례는 제주의대가 아닌 도내의 타 의료기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제주의대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Table 2).

부검례에 대하여 시행한 사인별 변화 양상에 있어서는 병사의 경우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10.6%), 외인사에 있어서는 손상사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손상사에 있어서 연도별 차이는 2000년을 전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둔력에 의한 사망 사고례에 있어서 현저하다(Table 3).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손상사의 17.0%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15.4%)보다 다소 높고, 중부분소(25.5%) 보다 낮은 비율이다(Table 4).

익사의 경우 외인사의 25.6%를 차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7.5%) 및 중부분소(7.6%)의 비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도별 발생건수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제주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한 사망 양상의 차이로 해석된다.

2002년의 경우 다른 해에 비해서 화재로 인한 사망 및 알코올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이 많았다. 사인불명례의 경우 역시 2002년 한해에 8건으로 많은 편이었으며, 모두 부패가 심하여, 사인 추적이 어려운 경우로써, 이 중 6례는 해양에서 표류상태로 발견된 사체이다(Table 3).

부검례에 대하여 시행한 사인별 변화 양상을 2001년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본소 및 중부분소에 서 발표된 자료와 비교해보면, 전체 대상군 중 병사의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인 반면, 외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인사 중 질식과 익사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데 비하여 온도 이상에 의한 사망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질식의 종류별 비교에 있어서는 국과수 본소의 경우 의사와 액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8.2%, 12.9%로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주대의 부검자료(의사;38.4%, 액사 11.5%)와 유사한 분포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의 경우는 의사 17.1%, 액사 48.8%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4).<sup>1,2)</sup>



Table 1. Number of Deaths and Unnatural Deaths in Jeju

	1998	1999	2000	2001	2002	Total
death	2,905	3,038	2,887	2,822	2,802*	14454
unnatural death(%)	165 (5.7)	161 (5.3)	253 (8.8)	255 (9.0)	284 (10.1)	1118 (7.7)

\* unofficial data



Table 2. Number of autopsy and unnatural deaths

	1998		1999		2000		2001		2002		Total	
	A	U	A	U	A	U	A	U	A	U	A	U
1	8	17	3	17	3	21	3	12	8	24	25	91
2	3	14	3	17	6	20	12	19	5	23	29	93
3	4	39	1	12	3	21	9	25	9	21	26	118
4	5	9	3	12	2	17	13	26	5	26	28	90
5	3	7	5	12	8	22	6[4]	24	11	23	29	88
6	4	6	1	8	7	17	4[4]	13	9	21	21	65
7	2	17	1	15	4	25	4[4]	28	4	21	11	106
8	3	20	8	16	8	24	7[7]	25	4	22	23	107
9	5	8	6	10	11	26	1	19	12	35	35	98
10	2	6	5	19	4	17	7	24	13	18	31	84
11	3	8	8	12	11	22	8	18	7	27	37	87
12	5	14	9	11	9	21	7	22	5	23	35	91
Total	47	165	53	161	76	253	81	255	92	284	349	1,118
(%)	(28.5)		(32.9)		(30.0)		(31.8)		(32.4)		(31.2)	

\* A: number of autopsy, U: number of unnatural death

[ ]: outside autopsy case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able 3. Year distribution of autopsy according to cause of death

Cause of death	1998	1999	2000	2001	2002	sum (%)
Natural Death	8	12	21	11	16	68 (20.6)
Cardiovascular	2	6	15	4	8	35
Digestive	2	2	3	3	2	12
Respiratory	2	0	1	2	2	7
Nervous	1	2	2	0	2	7
Endocrine	0	1	0	0	0	1
Miscellaneous	1	1	0	2	2	6
Maternal Death	0	0	0	0	1	1 (0.3)
Trauma	16	15	23	26	26	106 (32.1)
Fall	2	0	4	2	5	13
Blunt	7	6	9	12	13	47
Sharp force	2	7	6	6	4	25
Traffic	3	2	4	6	3	18
Gunshot	0	0	0	0	1	1
Unknown	2	0	0	0	0	2
Drowning	9	15	11	13	15	63 (19.1)
Intoxication	5	5	6	6	15	37 (11.2)
Co	0	1	0	0	0	1
Toxin	4	2	4	4	6	20
Alcohol	1	1	2	2	9	15
Drug	0	1	0	0	0	1
Asphyxia	7	4	7	4	4	26 (7.9)
Hanging	2	2	3	2	1	10
Manual str.	0	0	1	1	1	3
Ligature str.	4	1	0	1	0	6
Smothering	0	1	1	0	1	3
Choking	1	0	2	0	1	4
Thermal injury	2	0	3	1	7	13 (3.9)
Death by fire	2	0	2	1	7	12
Heatstroke	0	0	1	0	0	1
hypothermia	0	0	0	0	0	0
Electrocution	0	1	0	0	0	1 (0.3)
Unknown	0	1	5	1	8	15 (4.5)
sum	47	53	76	62	92	330

Table 4. comparison table with data of NISI

	Headquarters NISI(2001)	Central district NISI(2001)	Jeju(1998-2002)
Total	2807	480	330
natural	1020(36.3)	133(27.7)	68(20.6)
cardiovascular	(63.2)	(72.3)	(51.5)
unnatural	1690(60.2)	304(63.3)	236(71.5)
trauma	(48.8)	(46.4)	(44.9)
blunt	(35.8)	(32.6)	(44.3)
traffic	(15.4)	(25.5)	(17.0)
asphyxia	(14.7)	(13.5)	(26.6)
hanging	(48.2)	(17.1)	(38.4)
manual	(12.9)	(48.8)	(11.5)
drowning	(7.5)	(7.6)	(15.6)
poisoning	(12.6)	(15.5)	(11.0)
thermal	(11.4)	(10.5)	(5.5)
electrocution	(1.8)	(0.7)	(0.4)
unknown	(3.5)	(9.0)	(7.9)

\* NISI: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 고 찰

최근 5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망건수가 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연간 300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변사체 발생 건수의 경우 첫 두 해에는 160여건에 이르던 것이 200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연간 250건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수치의 갑작스런 변동은 단순히 변사체 발생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1999년과 2000년 사이에 제주도내에서 큰 사회경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구수나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도 아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사의 특수성상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긴 하겠으나 법의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회전반의 인식변화라고 판단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보험이나 보상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고,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가며, 또한 점차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어 가는 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수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변사사건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변사기록에조차 오르지 않고 누락되었던 많은 사건들이 검사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부검 현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과거에는 ‘두 번 죽인다’는 극히 유교적인 발상에서 사건 내용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유족이 원해서, 정말 왜 죽었는지가 궁금해서 부검을 의뢰한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수사관계자의 요구사항도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 부검을 통한 입증이 거의 없던 의료사고, 교통사고의 부검 의뢰는 물론,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과거 단순히 사인을 알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한다는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니 이러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제시해 달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건현장이 온전



히 보존된 상태에서의 현장검안요구는 현재의 인력으로 이미 감당하기 버거운 단계이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과 사회전반의 검시에 대한 의식 변화가 변사체 발생의 급작스런 증가라는 수치의 변화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에서 변사체 발생 건수 중 부검이 시행되는 비율은 31.2%로, 국내의 12.7%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이는 독일(50%)이나 미국(55%)과 비교할 때는 적은 편이나, 일본의 30%와는 비슷한 수준이다.<sup>3)</sup> 하지만 전체 사망 중 변사체의 발생비율이 7.7%에 해당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생 변사체에 대한 부검 시행비율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국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모집단의 기준에 대한 차이가 클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제주에서 변사체 발생비율의 연 평균치는 1990년 도쿄의 15.2%의 절반에 해당하며<sup>3)</sup>, 비록 검시제도와 법체계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긴 하나 1994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사망자의 41%가 검시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sup>4)</sup>, 극히 낮은 비율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제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내 타 지방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은 충주(9.6%)와 음성(8.4%) 지역의 변사체 발생 비율에서 엿볼수 있다.<sup>5)</sup>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에서만 유독 변사체 발생 비율이 적다는 것은 최근 드물지 않게 대두되는 의문사 문제와 관련하여 현 검시 체제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검시 관계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이다. 서론에 기술한 바와 같이 검시의 특성상 변사의 기준에 대하여 국가간, 지역간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검시는 그 태동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을 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변사체에 대해 법의학 적 검시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검시 전문가의 몫이다. 그러나 현 검시 체계에서 검시 여부 판단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지닌 검시 전문가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 일단 검시 대상이 된 사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검시 대상에서조차 누락된 경우는 속수무책이다. 우리 나라 검시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제주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검례의 사인별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둔력에 의한 사망 건수가 2000년을 전후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과 중독사 및 화재사의 경우 2002년에 특히 많은 발생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최근 들어 실제 이러한 사망례가 갑자기 증가한 것인지, 혹은 과거에도 일정 비율로 발행했으나, 부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종결 처리된 것인지를 현재의 자료로써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명한 것은 손상에 의한 사망은 물론, 중독이나 화재에 의한 사망사건의 경우, 검안만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엔 한계가 있으며, 반드시 법의학적 검색을 요하는 사망이라는 점이다.<sup>3)</sup> 주민의 죽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틀이 검시제도이고, 검시의 생명성이 정확성에 있다면, 정확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전문성이다. 바람직한 검시의 틀을 구축함에 있어서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많은 잇점을 내포하고 있다. 도내의 변사사건은 제주경찰서를 비롯한 3개 경찰서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관련 자료를 취합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나 변사체 발생 신고 절차를 조금만 수정 보완하면 단일 기관에서 검시 전문 인력이 도내의 사망 사건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체계 구축이 용이하다. 다른 지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전문 인력의 수급 문제 역시 제주의대가 의사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적지 않은 지원자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미래는 희망적이다.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틀 만들기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제주의대 법의학교실의 장단기 과제이다.

정확성과 더불어 검시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속성이다. 제주도는 도내 어느 곳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전문인력이 변사 현장까지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현장 검안의 최대 잇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신속성과 관련하여 제주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원 분야의 부재이다. 익사체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주의 경우, 익사

의 확증을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플랑크톤 검사는 전량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본소나 서부분소 등으로 의뢰되고 있으며, 항공 운송을 통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사건해결에 결정적인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검체의 분실이나 부패로 인한 감정 제한 등 엄청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다. 약물이나 독물, 유전자 검사와 같이 사인 규명이나 사건 해결에 있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검체의 처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제주도내에 이와 같은 검사를 지원할 인력과 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대학교내만 하더라도 자연과학대학이나 해양과학대학 등 플랑크톤, 약독물 및 유전자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주요 장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이 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해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필요한 것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검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체계와 이러한 체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틀이다. 대학과 수사기관, 행정당국의 협의 하에 별도의 엄청난 예산 지원이나 인력 확보 없이 검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도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결 론

지난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변사기록 및 부검례를 통해 사망 양상을 분석하고, 타 기관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제주의 검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재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검시체계상에서의 나타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급증하는 변사체 발생건수와 해마다 증가하는 부검 비율이 관계기관의 인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면 전문적인 관리체계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지정학적 특성상 현장검안이 용이하다는 잇점이 있지만, 감정물 처리 등 지원분야의 부재가 문제시되었다. 해결책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의 활용하기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지원할 제도적, 행정적 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검시의 영원한 과제인 정확성과 신속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참고문헌

1. 이원태, 조재홍, 기준도, 김재권, 강신몽. 2002년도 범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2002;26:1-9
2. 허대영, 김장희, 이봉우, 이호, 서중석. 2001년 충청지역에서의 범의부검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법의학회지 2002;26:47-54
3. 대한법의학회. 사인확인제도 개선방안. 2002.
4. 박희경, Peter V. 스코틀랜드의 범의부검제도와 글라스고우 지역의 부검통계. 대한법의학회지 1999;23:69-74
5. 박의우. 대한법의학회지 2001;25:26-30

